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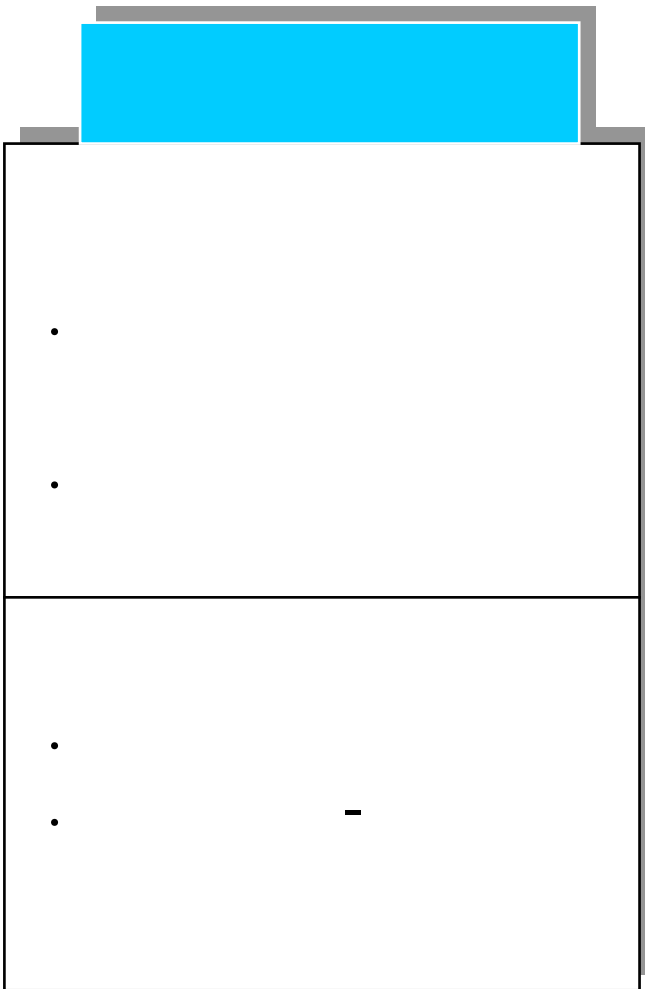
통증없는 병원

順/天/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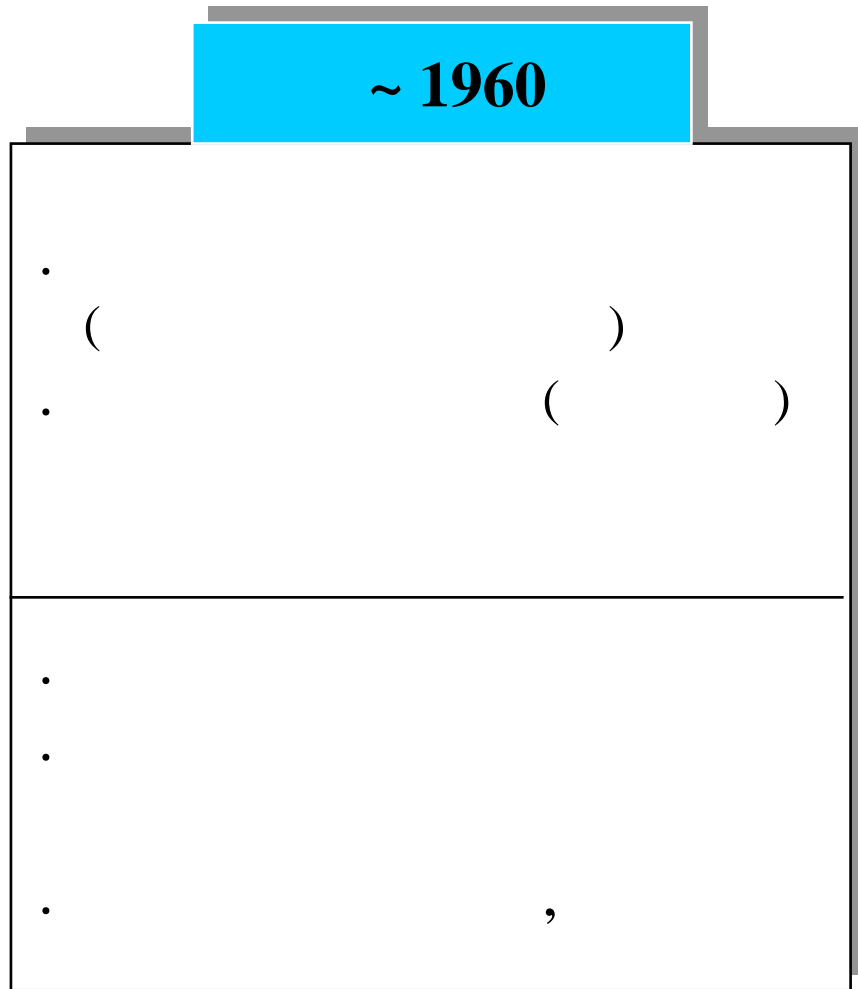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1.



~ 1960



1.

1970~1980

-
-
-

(30)

-

(,)

• OECF

1990

-
-
-

-

-



2.



- ◆ 1908 ()
6
- ◆ 1914 100 「
」
 - 醫師 醫生()
- ◆ 1922 醫生 (限地), 3 (限時)
- ◆ 1951

2.



- 가 : , , (氣) ,

- Evidence , ,

2.

1,000

가

2.



Ev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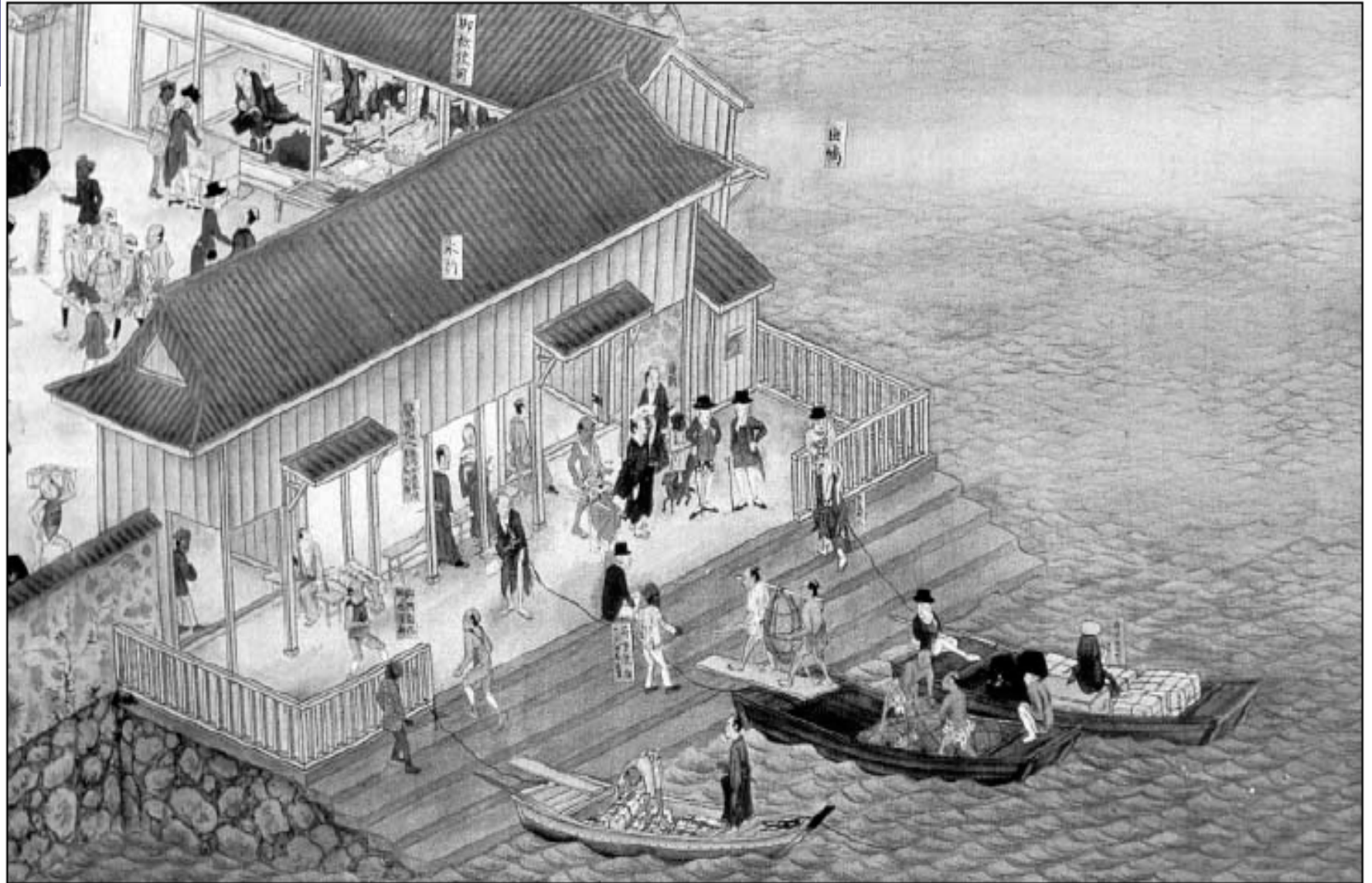
2.



(, , , ,)

200

, (順天堂) (蘭)



2.



가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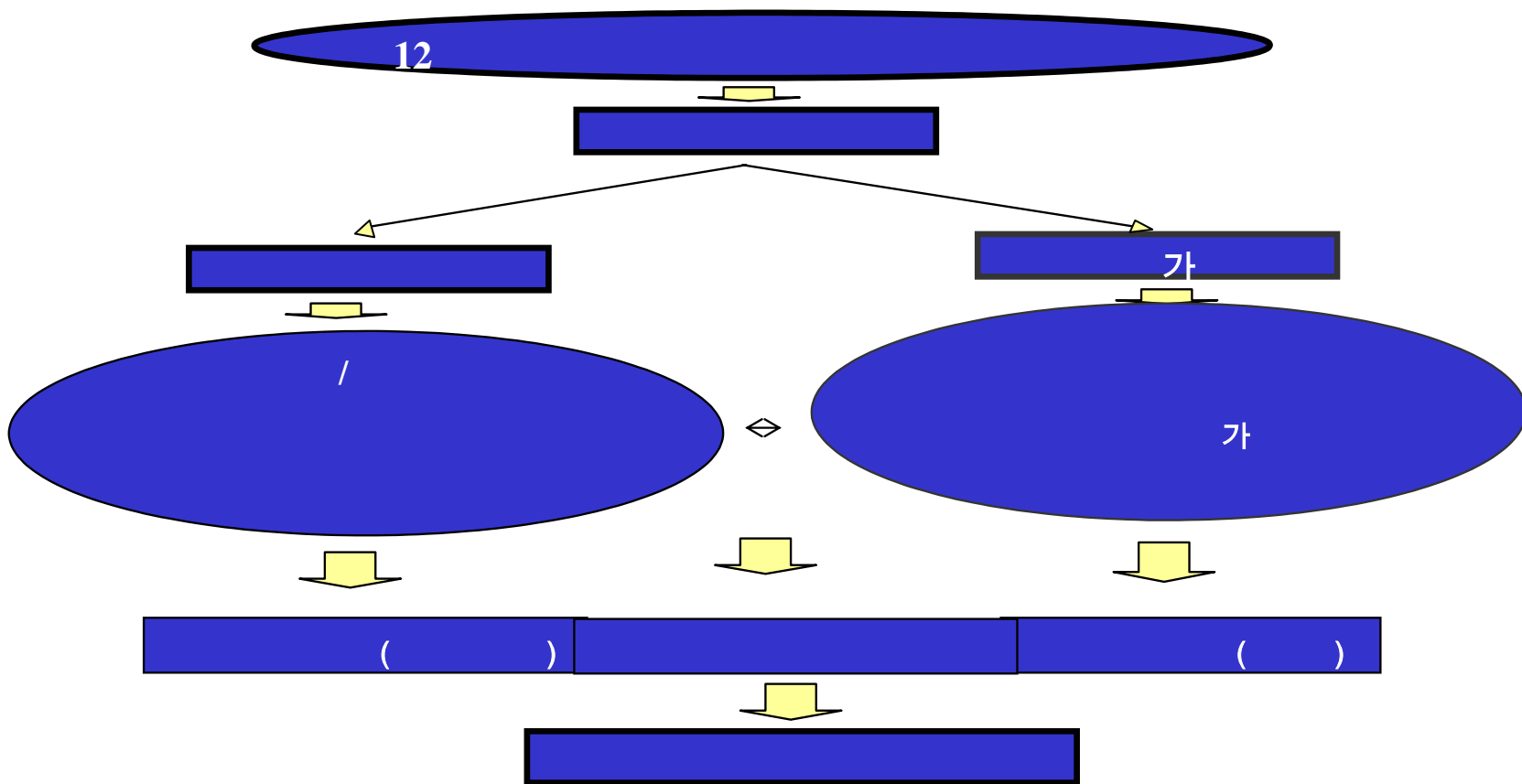
가

Eviden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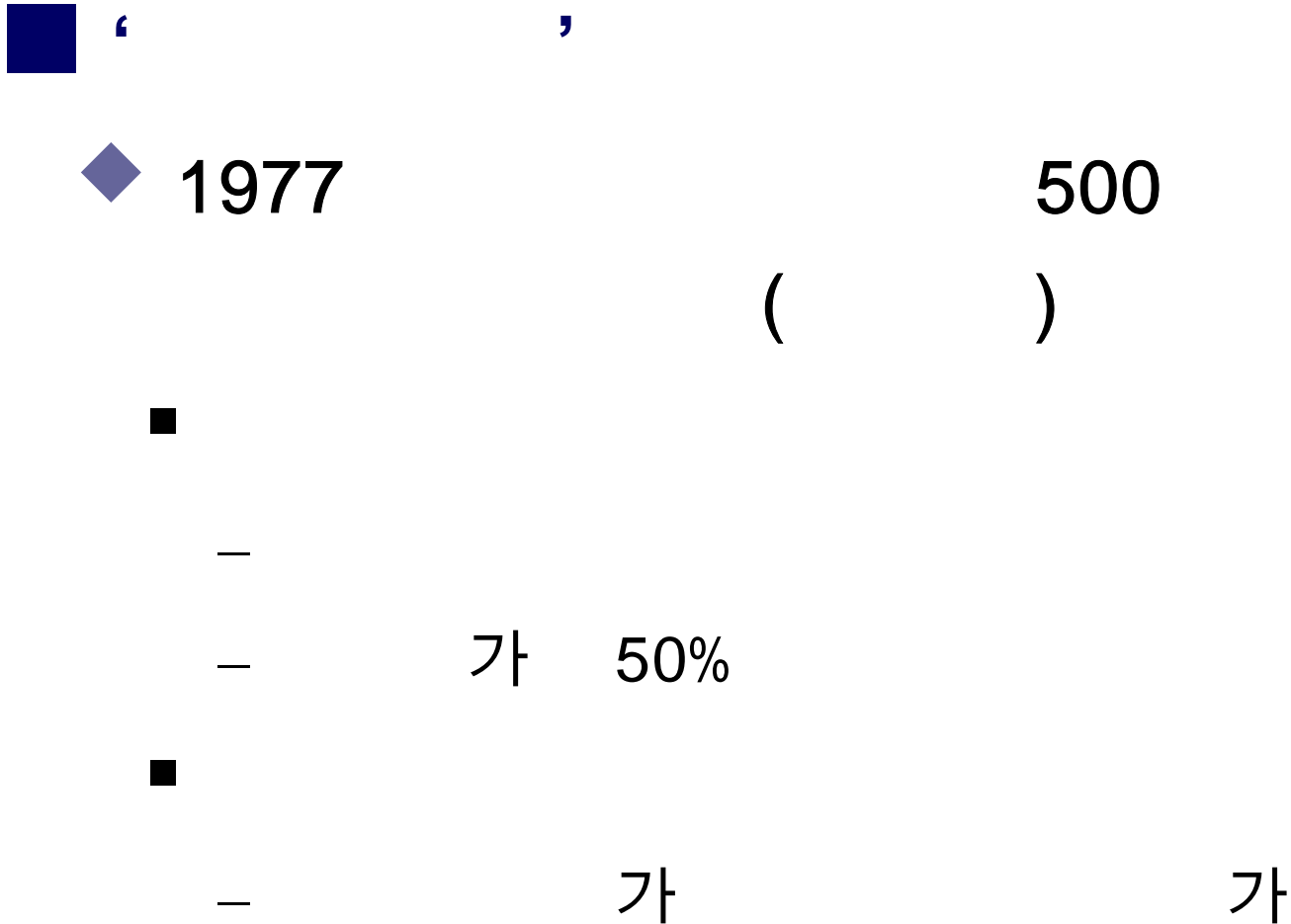


(), (), ()

2.



2.



2.

◆ 198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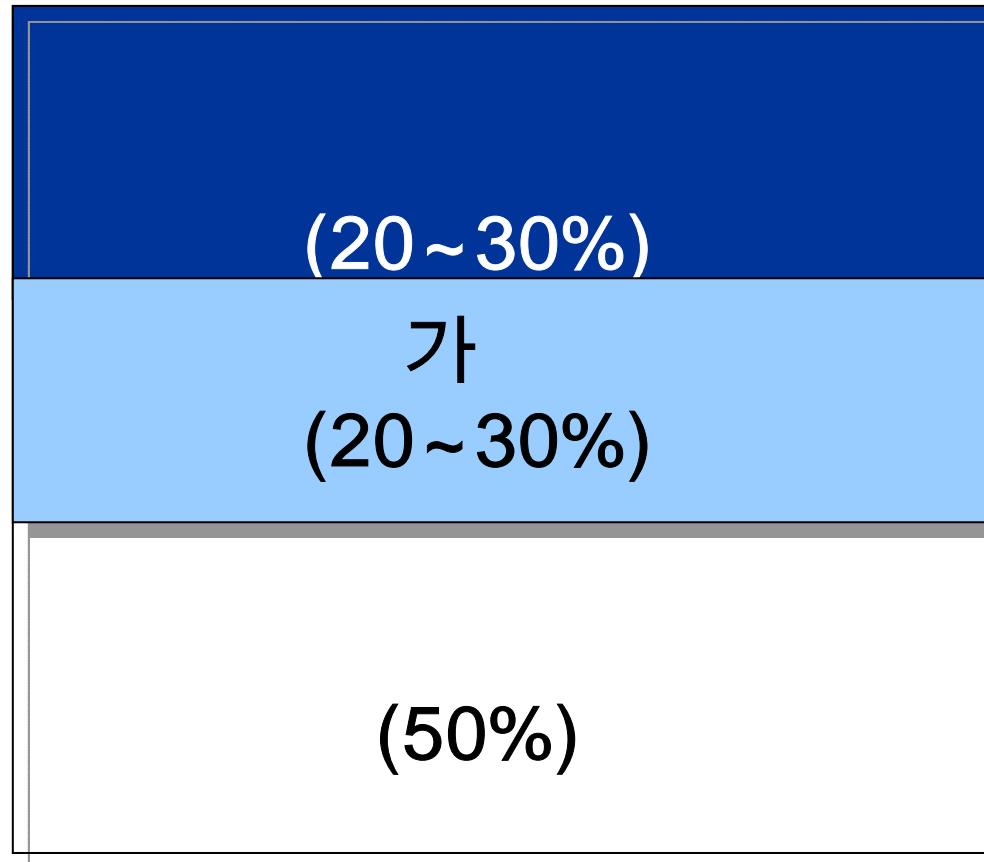
—

■

—

, 가

2.



2.



- ‘ ’

◆ ‘13

’



2.



‘

가’



가



가

가가

가가



가

,

2.



■ 가

2.

◆ 2001

- 가 , ,

-

- (가 :8)

2.



,



,



가



,



2.



- ,
- ()
-
- 가
- (가 ,)

2.

()

가

65

+ 45-64 ()

65

,

(가)

+

30~40%

(: , :)

+

20% (:)

2.

() - 가 10 (, ,)
- 3

() -

1

-
(2007) , 2010

2

- '07 ,

1

- '05. 7- '06. 3 , 5-6 ,

2

- '06. 4- '07. 6 , , ,

2.

가

- 가

-

- 24

-



-

-

- ()

-

-

-

-

- 가

-

- Care plan

-

-

-

-

2010

2.

	가	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4)
-

:05' 7-'07, 6(2)
- 1 : , 가 (9)
2 ,
- 2 : , (1 3)

(),

3.



- ◆ - ()
- ◆ - 6 ,
- ◆ - ()
- ◆ - (CT, MRI),
- ◆ , - , ,
- ◆ , -

3.



(,) 가 ,



WTO/DDA

3.



가가



건보 적용 안 받는 병원 복지부, 허용 추진

진료내용·비용 자율로 .. 수가 등 통제 안 받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작성, 최근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체 논의를 거쳐 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병원이 건보환자

취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큰 병원이 일부 병동에서 제한적으로 비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 지정 병원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정한 수가(의료행위의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이나 진료 횟수 등을 규정한 건보 진료자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술이 좋은 상형외과·피부과 의원이나 전문화된 중소병원들이 건보환자

를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시행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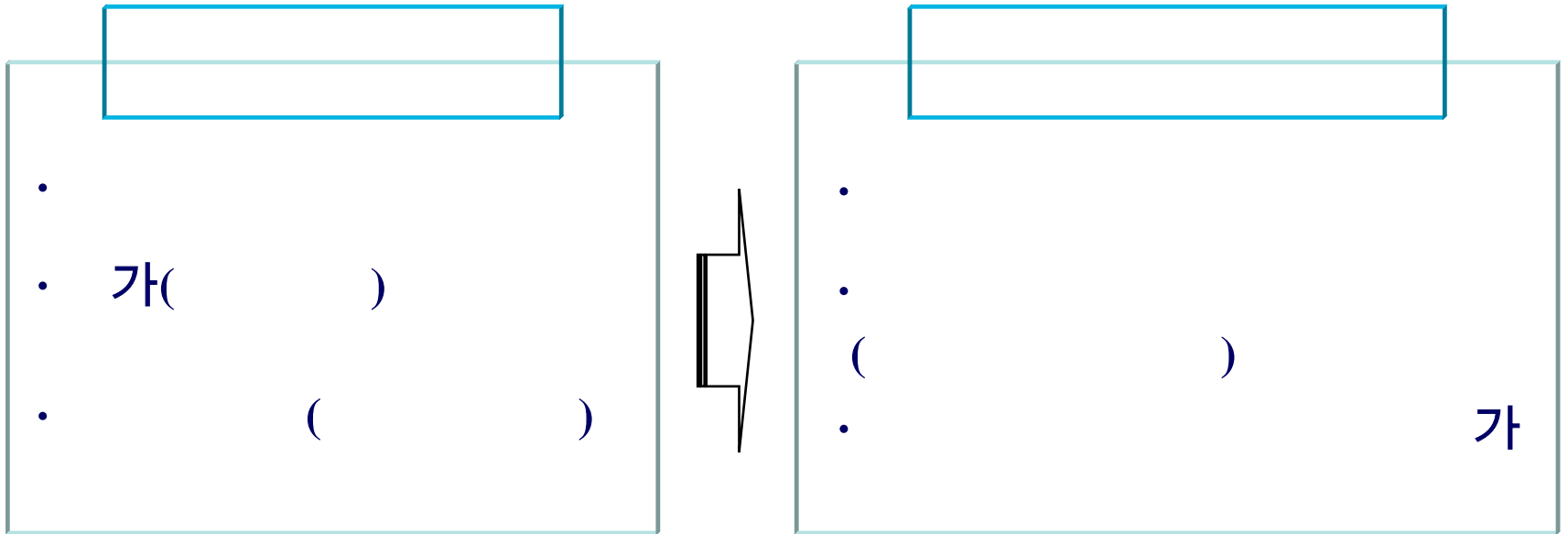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김 장관이 보고를 받고 '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어떤 의료기관은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다룰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방향이 빠지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시행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hin@joongang.co.kr

3.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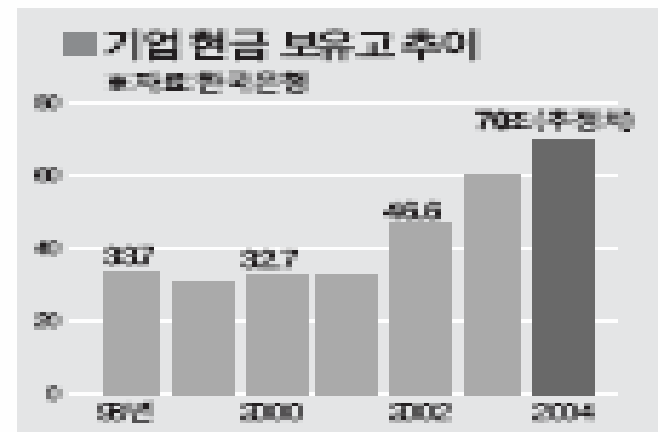
가



◇ (왼쪽부터) 박병원 제경부 차관보,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광무 서경대 교수, 박윤성 대한상의회장,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말 '기업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를 주제로 본사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 시점에서 기업투자를 살리려면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호기자 chokh@chosun.com

해법은 뭔가 5大 실행계획 제안

- ① 서비스업 진입장벽 철폐부터
- ② 출자총액제한 앞당겨 폐지
- ③ 지방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
- ④ 기업별 맞춤형으로 규제 해소
- ⑤ 일선공무원 재량남용 없어야



3.



,

,

,



70



, , ,



4.



가



(),

()

(, ,)

NHS



()

()

Internal Market



HMO
Managed Care

4.

◆ , EBM (CPG)

◆ 「 」

- Minor Invasive Treatment

- ()

-

- , , , , ,

4.



,

- (EBM, CME,)
()



4.



- (Quality of Life) ,



4.



, , 가



가

- 2001 : 가 가 80%
- (): 가 가 91.1%(2001)
85.2%(2002)
- : 가 89.0%(2002)
- : 가 84.4%(2002)
- : 가 91%
- : 가 85.54%
- : 가 89%
- 가 150-200% 가

4.

- | | | |
|-----------|---|-----------|
| (11,469) | 1 | (13,000) |
| (10,781) | 2 | (11,000) |
| (15,422) | 2 | (9,000) |
| 3000-5000 | 2 | (9,600) |
| | | (25,000) |
| | 1 | (17,000) |

- | | | |
|----------|---------|--------|
| | | |
| | 92,000 | 600 |
| B | 159,742 | 2,610 |
| | 523,195 | 49,130 |

4.

가가

가



■ OECD

4.21	8.5	13.5	14	10.8	17.6

1/2

(7.8%

)

2/3

4.



가

,

- (,)
- ()
- (,)
- ()
- (,)
- (가)

해맑은 공간.

